

김자영, 조남현 부부

# 맞장구 칠 수 있는 벗처럼



[김자영(YTN 제작기술팀), 조남현(MBC 문화사업부)]

부부여 대화하라. 부부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이가 돼야 한다.  
거기에 이야기 중간 “아! 그랬구나”하고 손뼉을 쳐주는 기본적인 센스까지.  
부부의 대화는 정답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마음을 보듬어 달라는 작은 보챔에 불과하다.  
그 보챔을 소중히 여겨 열심히 들어주고 리액션도 크게 하자.  
이 대화의 기술은 부모가 아이의 울음소리로 불편한 곳을 찾아내는  
초인적인 힘을 갖기 위한 전초전에 불과하다. 부부들이여 대화를 통해 교감하자.



### | 알림

김자영: YTN 기술국 제작기술팀 선임차장으로 스튜디오의 카메라와 카메라맨을 관리하고 있어요. 선임이라 현업보다는 장비나 카메라맨 스케줄 관리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어요.

조남현: MBC 사업센터 문화사업부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카메라기자로 입사해 10년 정도 근무를 했고, 좋은 기회가 찾아와 사업파트로 직종변환을 했어요. 어느 덧 사업팀으로 옮긴지도 4년이 넘었네요. 새로운 업무를 접하면서 또 다른 성취감으로 일하고 있어요.

### | 방송인의 시작

김자영: 가족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아버지와 삼촌이 기자셨는데 텔레비전에 나와서 리포팅하는 모습을 보면서 방송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죠. 어느 덧, 대학을 졸업하고 꿈을 위해 MBC 문화원에서 카메라맨 과정을 수료하고, 시험을 통해 YTN에 입사했어요.

조남현: 학창시절부터 사진기에 무언가 담기를 좋아했어요. 카메라의 매력은 촬영하는 사람마다의 차이로 다른 느낌의 작품이 나온다는 것인데, 그 매력이 좋아서 계속하다보니 군대시절에도 관련 일을 했어요. 그리고, 사회에 나오면서 이 재밌는 일을 돈까지 벌면서 계속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 과정 속에서 방송사 카메라기자의 길을 선택하게 됐어요.

### | 첫 만남

조남현: 우리의 연결은 국회에서 시작됐죠. 기자들은 출입처가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국회로 출입하던 선배가 있었고, YTN에서는 국회로 출입하던 아내 동기가 있었어요. 이 두 분이 회사 얘기를 주고받다가 이런 남자가 있다, 이런 여자가 있다하면서 돌을 맺어주자고 의기투합하셨죠. 서로의 연락처를 건네주고 만나보라고 해서 전화통화를 하고 홍대의 모 카페에서 첫 대면식을 했어요.

김자영: 첫 대면을 했는데, 아저씨가 나온 줄 알았어요(^^). 어찌나 나이가 들어보이던지. 그런데, 앉아서 차를 시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사람 괜찮다라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 후, 만남이 지속되면서 소소한 즐거움도 알고, 믿음직한 매력도 지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난 지 1년도 안 되서 날짜 잡고, 결혼까지 짝꿍 진행됐죠.

### 부부가 같은 직종(방송사)에 종사한다는 것

조남현: 사내 커플들도 보고 그러는데, 아마 같은 회사였으면 불편했을 거예요. 일단, 비상금이 필요한데(^) 같은 직장이면 수당이 언제, 얼마가, 어떻게 지급되는지를 다 아니까 힘들죠(^).

김자영: 챙기세요. 챙기세요. 비상금 많이 챙기세요(^).

조남현: 일상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많이 돼요. 같은 직종에 몸담으면서 이해하는 마음도 커지고, 일에서도 자신만의 한정적인 생각에 빠질 수 있는데 외부의 많은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다양한 생각과 시선을 갖게 해줘요. 아내가 회사 일부러 아이 육아까지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평상시 아주 많이 들어주고 있어요.

김자영: 저도 도움이 많이 돼요. 대화의 장에서 맞장구 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방송사는 정보가 빠르게 들어오고 회전하는 곳인데, 전혀 다른 직종의 부부였다면 같은 사안을 놓고도 대화가 안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면서도 서로 대화가 잘 통하는 게 좋아요.

### 일과 육아는 노력이다

조남현: 일과 육아를 모두 잘해내는데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아내가 1년간 모유수유를 했는데, 그 지극정성이 지금도 너무 고맙고,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족 육아의 1등공신은 장모님이세요. 이 시간을 빌어 장모님께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아이를 장모님께서 돌봐주시고 계신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가족의 품에서 따뜻한 손길로 자란다는 것이 삶의 행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과 육아를 모두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족을 구성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해요.



김자영: 직장여성의 시각으로 본다면 회사에도 고마워요. 요즘 여성을 보호하는 법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지켜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회사에서 보호해주고, 복귀했을 때 다시 설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조남현: 육아에 참고하라고 한다면, 일단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요(^). 남편이 아이의 목욕을 맡아서 해주면 아주 좋아요. 저도 아이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목욕을 시켜주고 있는데, 이 시간이 아이와의 교감도 쌓이고 아내의 힘든 어깨도 보호해 주죠. 가장 좋은 건 친가든 외가든 들어가서 사는 거죠(^).



### 함께하는 취미생활

조남현: 결혼 전부터 사진을 좋아하면서 여행하고 몸으로 하는 걸 즐기게 됐어요. 그러면서 겨울이 되면 스키를 타러 다니는데, 아내가 추위를 많이 타는데도 잘 따라와 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할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해주는 분위기였는데, 다이아몬드 반지를 안 해주고,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살면서 반지를 얼마나 낄지는 모르겠지만 반지대신 일 년에 한 번은 무조건 해외여행을 가겠다고. 그 후, 한번 이상도 가고 국내여행도 자주 다녀요. 그 약속이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어서 더욱 행복해요.

김자영: 우선, 남편이 약속 지키면서 살아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아이가 생기면서 갖게 된 취미 혹은 다짐인데, 일주일에 하루는 아이와 외출을 하려고 해요. 직장생활에 매어있었으니깐 평상시 아이에게 소홀했던 부분이 없는지도 돌아보고, 아이가 사회 속에서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일상이 즐겁고, 생활의 활력도 찾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 서로를 위한 격려와 바람

김자영: 남편이 담당하고 있는 일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직종변환을 하면서 중요한 일을 맡은 만큼 좋은 결과로 돌아왔으면 좋겠고, 항상 힘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는 이들 호연이가 지금처럼 해맑게 자라주었으면 좋겠고, 우리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조남현: 아내가 아이의 엄마로써 항상 노력하는 모습 정말 고맙고, 딸로 머느리로 어른들 공경하며 열심히 살아줘서 또 고마워요. 앞으로도 우리가족 힘든 일이 닥쳐도 지혜롭게 해서 나가고, 지금처럼 힘박웃음 지으며 오래오래 행복하길 바라요.